

↑ 코스피 2576.16 (+18.03)	↓ 코스닥 734.92 (-12.03)
↑ 금리 (미국 9년) 2.594 (+0.029)	↓ 환율 (원-달러) 1446.10 (-8.40)



## ‘대금 못 받을라’... 협력사 납품축소·중단사태 현실화

### ‘기업희생’ 홈플러스 파장 일부 입점사들 1월 대금 못 받아 홈플러스 “순차적 지급 예정” 해명 개인·기관 투자자 손실도 불가피

홈플러스 기업희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입점업체와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1월 매출 대금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10만여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손실 위험까지 부각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내 입점 업체들이 지난 4일 현재 1월 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특약계약을 포함한 임대료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의 임대 계약 종류는 임대갑, 임대을(특약 계약 포함)의 두 가지다. 임대갑 방식은 홈플러스 입점 업체가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으로, 입점업체가 홈플러스에 정산받을 돈은 없다.

다만, 특약 계약을 포함한 임대을 방식 입점 업체는 사정이 다르다. 매출액 전체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대신, 홈플러스가 POS(포스)기(대형마트 계산기)로 매출을 관리한다. 한 달 후, 홈플러스는 임대료와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계산해 정산해 줘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희생절차 개시에 들어가면 일반상거래 경우 법원의 허락이 떨어져야 자금이 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법원의 허락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용 현금 잔고는 3090억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 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용자금이 6000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금 지급 날짜는 답변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며칠 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주요 납품업체들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

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날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 상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며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과 삼양식품도 이날부터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고를 중단했다. 오뚜기의 경우 홈플러스 납품 물량을 줄였다. 이들 업체는 홈플러스가 협력사 대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로서는 납품 재개 시기도 미정이다.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매일유업, 풀무원, 동원F&B, 롯데웰푸드, 웅진식품 등 주요 업체들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개인 및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민가에 떨어진 폭탄 날벼락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

## “재생 치료제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 혁신”

### ‘3월 상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씨 2027년부터 상용화 오디세이 3년간 10배 이상 성장

“오가노이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하게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래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줄기세포를 3차원 배양해 인체 장기를 재현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적용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소재 평가 솔루션을 공급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대표 제품은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아톰(ATORM)’과 오가노이드 신소재 평가솔루션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공개하고 있다.

‘오디세이(ODISEI)’다.

아톰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난치성 장 궤양 치료제 ‘아톰-씨(ATORM-C)’는 손상된 장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근원적 치료법을 제공한다. 회사는 고품질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과 내시경을 활용한 투여법, 자체 개발한 세포외기질 등 기술을 통해 아톰-씨를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톰은 손상 조직 내 생착 및 분화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

아톰-씨는 작년 환자 투여 후 추적 관찰을 시작해 올해 임상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 임상 단계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된 데 따라, 회사는 올해 하반기 첨단재생의료 치료 목적으로 아톰-씨를 승인받고 2027년부터 국내 병원을 통해 상용화를 이를 계획이다. 글로벌 상용화 시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기술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첨단 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재생 치료와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분야”라며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오가노이드 기술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활용해 미래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與, 이재명이 쏘아올린 ‘상속세 개편’에 맞불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로”

### 권영세 與비대위원장 자제안 내보 “시대변화 반영, 오랜 불합리 개선”

국민의힘이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제안을 내놓아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 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



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에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 ▲ 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건의 타당... 정부 적극 검토해야”
- ▲ 오세훈 “여야 초월하는 ‘국민 개헌 연합’ 만들자”

/사진 뉴시스

- ▲ 정부, 펜타닐·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강화... 입영대상자 마약 검사
- ▲ 국방부 “오폭 사고 규명 전까지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

- ▲ 권영세, 포천 軍 오폭 사고 현장방문... 지역주민 위로
- ▲ 경찰, ‘비서 성폭력 의혹’ 장제원 전 의원 소환 통보